<h1>나 혼자만 레벨업-1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qec5a56612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화</p>  
<p>1. E급 헌터</p>  
<p>E급 헌터 성진우.</p>  
<p>진우가 뭘 하든 간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였다.</p>  
<p>진우의 능력치는 거의 일반인과 마찬가지.</p>  
<p>남들보다 조금 튼튼하고 회복이 약간 빠른 걸 빼면 일반인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.</p>  
<p>그러다 보니 항상 부상을 달고 살았다.</p>  
<p>죽다 살아난 것도 여러 번이었다.</p>  
<p>물론 진우라고 좋아서 헌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.</p>  
<p>일은 위험하지, 늘 무시당하지, 심지어 벌이까지 시원치 않다.</p>  
<p>만약 헌터협회에 소속된 헌터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보조금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헌터증을 반납하고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.</p>  
<p>그러나 이제 겨우 20대 중반에 특별한 재주도 없는 진우가 매달 수백씩 들어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은 헌터가 되는 것뿐이었다.</p>  
<p>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까?</p>  
<p>그래서 그날도 진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 없이 협회 주관의 레이드에 참가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헌터들은 대개 서로를 잘 안다.</p>  
<p>게이트가 열리면 그 지역의 헌터들이 총집합하기 때문이다.</p>  
<p>먼저 온 헌터들은 협회 직원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.</p>  
<p>"어이, 김 씨. 여기야. 여기."</p>  
<p>"오, 박 씨가 웬일이야? 이제 헌터짓은 그만둔다며?"</p>  
<p>"그게... 마누라가 덜컥 둘째를 임신해 버려서."</p>  
<p>"하하하핫. 그래. 헌터들이 한몫 잡기엔 레이드만 한 게 없지."</p>  
<p>김 씨가 호쾌하게 웃음을 터트리자 박 씨도 머쓱하게 따라 웃다가 물었다.</p>  
<p>"그런데 요즘은 협회 호출이 뜸하네? 게이트가 생기는 횟수가 좀 줄었나?"</p>  
<p>"에이, 무슨. 요샌 협회보다 길드들이 더 열심이라 그렇지. 큰돈이 움직이다 보니 길드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더만."</p>  
<p>"그럼 이번 레이드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거니 안전하다고 봐도 될런가?"</p>  
<p>슬슬 걱정되는지 박 씨가 주위의 눈치를 살폈다.</p>  
<p>길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큰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, 큰돈이 되지 않는 게이트는 보통 공략 난이도가 현저히 낮았다.</p>  
<p>하지만 어떤 일이든 100퍼센트는 없는 법.</p>  
<p>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헌터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.</p>  
<p>"글쎄..."</p>  
<p>남은 커피를 마저 들이켜며 대답을 피하던 김 씨가 멀리서 다가오는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.</p>  
<p>"어, 저기 온다. 성 씨! 성 씨!"</p>  
<p>다른 헌터들도 그를 보고 기쁜 낯빛을 띠었다.</p>  
<p>"안녕하세요."</p>  
<p>목소리의 주인공은 성진우였다.</p>  
<p>진우는 반갑게 맞이해주는 김 씨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그대로 지나쳐갔다.</p>  
<p>김 씨는 진우가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흐흐 웃으며 호언장담했다.</p>  
<p>"진우 왔네. 그럼 여긴 안전해."</p>  
<p>눈이 동그래진 박 씨가 김 씨에게 붙어 섰다.</p>  
<p>"뭐야? 성진우라는 헌터가 그렇게 강해?"</p>  
<p>"아, 박 씨는 잘 모르겠구나. 박 씨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오기 시작한 헌터야. 여기 헌터들치고 성진우 모르는 사람 없지."</p>  
<p>"그렇게 세다고? 그런데 왜 협회 소속으로 일한대? 대형 길드나 프리랜서 안 하고."</p>  
<p>히죽히죽 웃던 김 씨가 눈을 흘겼다.</p>  
<p>"저 사람 별명이 먼 줄 알어?"</p>  
<p>"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뜸 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 보우."</p>  
<p>"인류 최약병기."</p>  
<p>"...최약병기? 최종병기가 아니고?"</p>  
<p>"이 사람아. 그건 S급인 최종인 헌터 별명이고. 저 사람은 최약병기. 아마 대한민국 헌터 중 제일 약할걸."</p>  
<p>"뭐?"</p>  
<p>박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성진우란 헌터가 그렇게 약하다면 왜 다들 그를 반겼단 말인가?</p>  
<p>유사시엔 자신의 등 뒤를 맡겨야 할 사람인데.</p>  
<p>다른 헌터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.</p>  
<p>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 김 씨가 웃으며 박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.</p>  
<p>"에이! 그러니까 성진우가 오는 레이드는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. 그 사람한테는 협회가 절대 힘든 일을 맡기지 않거든. 그랬다가 누구 죽는 꼴 보려고?"</p>  
<p>그제야 박 씨의 얼굴도 밝아졌다.</p>  
<p>"그, 그래?"</p>  
<p>오랜만의 레이드라 마누라가 옆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.</p>  
<p>실은 자신도 불안해하던 차였다.</p>  
<p>그런데 김 씨 이야길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.</p>  
<p>김 씨는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저 양반 E급 게이트에서도 다쳐가지고 일주일을 입원했다는 소문이 있어."</p>  
<p>"헌터가 E급 게이트에서 다쳤다고?"</p>  
<p>"그렇다니까. 설마 E급 게이트에서 다칠 사람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치유 헌터도 안 데려갔다나 봐."</p>  
<p>"그래서 병원 신세를 일주일이나? 푸하하하핫!"</p>  
<p>박 씨가 너무 크게 웃자 김 씨가 눈치를 줬다.</p>  
<p>"에끼, 이 사람아. 성 씨 들을라."</p>  
<p>"아이고, 그걸 생각 못했네."</p>  
<p>박 씨는 진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낄낄거렸다.</p>  
<p>다행히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이쪽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그건 오판이었다.</p>  
<p>'다 들려요, 이 아저씨들아.'</p>  
<p>진우는 그들의 눈빛을 애써 모른척하며 쓴웃음을 지었다.</p>  
<p>이럴 때는 유난히 밝은 자신의 귀가 원망스러웠다.</p>  
<p>아직 레이드가 시작되기는 이른 시간.</p>  
<p>'너무 일찍 도착했나?'</p>  
<p>시간 때울 거리를 찾던 진우는 커피를 나눠 주는 협회 직원을 발견하고 그리로 다가갔다.</p>  
<p>"커피 한잔 부탁드려도 될까요?"</p>  
<p>"아, 성진우 헌터님...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? 커피가 방금 다 떨어져버렸는데."</p>  
<p>"..."</p>  
<p>겨울바람이 코끝을 따갑게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진우는 검지로 코끝을 훔쳤다.</p>  
<p>하필 자신의 차례에서 동난 커피마저 서러운 날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진우 씨는 왜 헌터 일을 고집하는 거예요?"</p>  
<p>"죄송합니다."</p>  
<p>진우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진우 앞에서 치료 마법을 시전하고 있는 미녀, 이주희는 뾰로통한 얼굴로 불만을 표시했다.</p>  
<p>"진우 씨한테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진우 씨가 걱정돼서 그렇죠. 매번 이런 식으로 싸우다간 언젠가 진짜 위험해질 거라고요."</p>  
<p>진우는 주희 어깨너머로 싸우고 있는 동료 헌터들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던전이 나온다.</p>  
<p>이번 던전의 랭크는 D급 정도.</p>  
<p>십수 명의 헌터들이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던전 안의 괴물들을 처리하는 중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E급 헌터인 진우에게는 그마저도 벅찼다.</p>  
<p>보통 부상당한 헌터의 처치는 후방에서 대기하는 치유 헌터들의 몫.</p>  
<p>레이드마다 부상당하는 진우는 치유 헌터들 사이에서도 유명인이었다.</p>  
<p>주희가 조심스레 물었다.</p>  
<p>"혹시 헌터 일을 그만두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?"</p>  
<p>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밝히기는 싫었다.</p>  
<p>"헌터 일은 취미로 하는 겁니다. 이거라도 안 하면 아마 심심해서 죽을 걸요."</p>  
<p>그러자 주희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.</p>  
<p>"취미 생활 두 번 하다간 저승에서 레이드하고 있겠네요."</p>  
<p>방심하고 있던 진우는 그만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.</p>  
<p>덕분에 주희의 잔소리가 이어졌다.</p>  
<p>"아아! 웃지 마요, 웃지 마! 상처 벌어진다고요!"</p>  
<p>진우가 끅끅거리다 물었다.</p>  
<p>"아니,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요?"</p>  
<p>"어디서 배우긴요. 조오기- 김 씨 아저씨한테서죠."</p>  
<p>"아이고, 하여튼 저 아저씨 진짜..."</p>  
<p>웃고 떠드는 사이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이미 한발 늦었다.</p>  
<p>레이드는 어느덧 정리되는 분위기였다.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.</p>  
<p>'오늘 내가 잡은 마수는 겨우 한 마리.'</p>  
<p>그것도 E급 하나.</p>  
<p>진우는 손에 쥔 E급 마정석 하나를 만지작거렸다.</p>  
<p>E급 마수에서 나오는 최하급 마정석은 10만 원도 하지 않는다. 목숨을 건 대가치고는 아주 형편없는 보수였다.</p>  
<p>'C급 마수에게서 나오는 마정석만 해도 천만 원이 넘는다던데...'</p>  
<p>그러나 겨우 E급 헌터에 불과한 진우에게 C급 마수는 너무 까마득한 상대였다.</p>  
<p>그때, 누군가가 외쳤다.</p>  
<p>"어? 여기 입구가 하나 더 있는데?"</p>  
<p>근처의 헌터들이 우르르 몰려갔다.</p>  
<p>"어, 그러네?"</p>  
<p>"진짜 입구가 하나 더 있네?"</p>  
<p>최초 발견자의 말처럼 던전 안에 또 다른 던전의 입구가 숨겨져 있었다.</p>  
<p>"이중 던전이라... 이런 게 실제로 있긴 있구먼."</p>  
<p>10년 차 헌터인 송 씨가 던전의 입구를 들여다보며 신기해했다.</p>  
<p>동굴 안쪽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송 씨는 자신의 장기인 불꽃 마법을 시전해 안으로 던져 보았다.</p>  
<p>불꽃이 휙 날아가며 안을 비추었다.</p>  
<p>통로는 끝없이 뻗어 있었다.</p>  
<p>이내 추진력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불꽃이 조금 타닥거리다 곧 꺼졌다.</p>  
<p>동굴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.</p>  
<p>"흠... 다들 잠깐만 나 좀 보세."</p>  
<p>실질적 리더인 송 씨가 헌터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.</p>  
<p>마침 치료가 끝난 진우와 주희도 그리로 모였다.</p>  
<p>송 씨는 헌터들을 둘러보며 말했다.</p>  
<p>"다들 잘 알다시피 모든 게이트는 던전의 보스를 잡지 않으면 닫히질 않어. 여길 다 정리했는데도 게이트가 멀쩡한 걸 보니 보스는 저 안에 있는 모양이구먼."</p>  
<p>송 씨는 숨겨진 던전 입구를 가리켰다.</p>  
<p>헌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.</p>  
<p>송 씨는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원래 이런 경우에는 협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... 그랬다가 다른 헌터들에게 보스를 뺏기면 우리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수가 있어."</p>  
<p>헌터들의 표정이 구겨졌다.</p>  
<p>특히 부인의 임신 때문에 목돈이 필요했던 박 씨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졌다.</p>  
<p>'요즘 산후 조리에 드는 돈만 해도 얼만데...'</p>  
<p>목숨 걸고 레이드에 나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.</p>  
<p>"그래서 나는 우리끼리 보스를 처치하고 나갔으면 하는데...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감?"</p>  
<p>헌터들은 생각에 잠겼다.</p>  
<p>"..."</p>  
<p>"..."</p>  
<p>물론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.</p>  
<p>하지만 이번 던전은 난이도가 매우 낮았다.</p>  
<p>그러다 보니 던전 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던전도 난이도가 그리 높을 것 같지는 않았다.</p>  
<p>"흠흠."</p>  
<p>송 씨가 헛기침을 했다.</p>  
<p>"모두 17명이니까 투표로 결정하자고. 결정되면 딴소리하지 말기로 하고. 어떤감?"</p>  
<p>송 씨의 제안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"나는 가."</p>  
<p>송 씨가 손을 들었다.</p>  
<p>그러자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손을 들었다.</p>  
<p>"저도요."</p>  
<p>"저도 갑니다에 한 표."</p>  
<p>박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, 김 씨나 다른 헌터들도 손을 들어 올렸다.</p>  
<p>당연히 반대표도 많았다.</p>  
<p>"가지 말죠."</p>  
<p>"일단 협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"</p>  
<p>가자와 말자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, 투표는 돌고 돌아 마지막 남은 두 사람 진우와 주희 차례까지 왔다.</p>  
<p>"죄송해요..."</p>  
<p>주희는 송 씨에게 고개를 꾸벅이고는 안 간다에 한 표를 더했다.</p>  
<p>이로써 가자와 말자는 8대 8.</p>  
<p>동점이 되었다.</p>  
<p>송 씨는 결정을 망설이는 진우에게 딱 잘라 물었다.</p>  
<p>"성 씨는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